

유라시아 지역 바지 구조의 계보

김 문 영* · 조 우 현**

계명대학교 패션대학 전임강사* ·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교수**

The Genealogy of Trousers in the Eurasian Region

Mun-Young Kim* · Woo-Hyun Cho**

Full-time Instructor, College of Fashion,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 Inha University**
(2003. 7. 31 투고)

ABSTRACT

The style of different styles of clothing have been developed by not only the natural environment and social effects, but also by various variables such as the peculiar cultures and religions of different ethnic groups. It is naturally accepted without question that the origin of trousers was derived from the Skytie race in the modern style of dress. And the style of those trousers has changed and developed throughout a long history in different environments and surroundings. As part of the research of the process in this styles of clothing, it is essential to know how the fabric of trousers has been developed and how the styles have been changed because of different weather conditions and different religions. Nowadays, Eurasian countries was scattered from western and eastern Asian countries to middle Asian countries such as Russia, Uzbekistan, Kazakistan, Turkey, Turkmenistan, Iran and China. These countries are located on the way to the Silk Road. They are fully developed in a cultural area among the different religions. In terms of cultural aspects within the different religions, men's trousers had developed the traditional style of this dress as one of the importnat items on the cultural basis. The ranges and types of these traditional trousers are divided by the regions, such as west and southern Asia, central Asia and China. Pakistan, Afghanistan, Iran, Iraq, Syria, Lebanon, Turkey, Jordan, Saudi Arabia, Kuwait and Israel was a part of the west and southern Asian countries which were located between western countries and eastern countries. This tribes wore Shalwar trousers which is a wide style of trousers. Shalwar in the western and eastern Asian region has a specific feature by the each nation but has the same distinctions such as by using very wide and loose style and tying a fine thread around the waist. Some central Asian countries consisted of part of China, Turkmenistan, the Republic of Tajikistan, the Republic of Kyrgyzstan and the Republic of Afganistan. These style of trousers are compound types

which appeared with mixing Draperian Greek culture. So it can be inferred from this data that the horse-riding nomadic trousers which had been handed down from Skytie tribe through Persia. The style of the trousers in those regions has small pieces. The style of the trousers in China, which is located on the way to the far eastern countries, has developed new trousers put together two pieces of the textile. These widen trousers can be worn by using a sash belt. So we can find out that those trousers of countries which mentioned above have a common point and a rule.

Key words: trousers(바지), horse-riding nomadic tribe(기마유목민족), Shalwar(샤르와르), Dhoti(도티)

I. 서 언

현대인에게 일상복으로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바지는 스키타이 민족에서부터 시작되어 페르시아일대와 게르만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 전파되었으며, 이것이 흉노족을 통해 동양에 전래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바지의 기원이다. 바지는 실용적인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착용되어 각 지역과 민족마다 각각의 생활 문화에 맞게 형태와 특성을 가지고 발달되어 왔다. 이런 복식문화의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의 한 부분으로 민족 복식으로서의 바지의 구조가 어떠한 형태로 분포, 발달되었으며, 어떻게 변화되었나를 찾아보는 일은 흥미로운 복식고찰의 관점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인류문화의 유형을 복식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으로 인류, 민족, 지리, 풍속 등 타 학문 분야에의 연계적 자료로도 활용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유라시아지역이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함께 부르는 말이지만, 협의의 유라시아분류로 볼 때는 현재의 중동을 포함하여, 극동아시아와 동서유럽을 제외한 지역으로 보기도 하는 견해¹⁾도 있다. 그러므로 연구의 범위를 유라시아 지역 중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스텝지역인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4개 공화국과 카자흐스탄 남부지역을 포함하는 중앙아시아, 터키와 시리아, 레바논,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문화권 지역인 서부아시아,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지역의 해안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시아로 크게 세 부분으로 한정하였다. 그리하여 각 지역의 일반적인

기후 특색과 생활양식, 생산 수단 등 지역 환경적인 영향에 의한 남자바지의 발달 형태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 19, 20세기의 민족의상으로 착용되는 남자바지의 형태와 착용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넓은 지역에 걸친 여러 국가의 실물을 접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 선행 연구 문헌과 실물의 바지에 대한 시각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비교하는 방법으로 바지 구조의 유사성과 차이점, 문화유형을 분류하여 본다. 연구 문제는 각 지역 민족 복식에 대해 알아보며, 남자바지의 구조 및 스타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의 특이점에 대한 고찰과, 스키타이에서 전래되었다고 보는 바지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연관성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하는 부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연구의 제한점은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민족복식의 실물계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문헌에 의한 연구라는 점이라 할 수 있다.

II. 남자 바지의 전래

현대인의 의복문화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각 민족들의 전통적인 복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민족간의 축제나 고유 행사가 아닌 국제교류의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양복을 착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 양복의 기본 구조는 바지와 셔츠, 자켓으로 구성되며, 특히 남자에게는 바지 이외의 착용은 민족복식을 제외하고는 금기 시 되어 있다. 이런 남자 바지의 기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인 스키타이족에 의해 처음으로 착용되었으며, 유목 기마 민족인 이들이 게르만족에게 바지의 착용을 전해주어 오늘날 서양복의 기초로 만들었다는 것이 상식적인 통념이다. 스키타이인은 남부러시아의 초원지대에서 살던 기마 유목민족으로 기본복식은 유목 생활의 기본인 이동의 편리성과 말을 탈 때의 활동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바지와 같이 두 다리를 각각 감싸는 형태의 복식은 활동의 편리성과 말 위에서의 다리의 마찰로 인한 신체의 상해를 피할 수 있으며, 보온에도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의복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달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의 획득과 생활환경에 대한 적응인데 小川安郎에 의하면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후조건과 지형적인 특징을 살리는 생활방식을 만들어야 하며, 그 적응은 일을 통해서 물자를 획득하여야 하기에 그 일을 위한 효율적인 의복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복식은 필수로 노출부가 많아지며, 몸에 밀착되어야 하고, 몸에 다른 방해물이 부착되지 않아야 하며, 착용한 옷의 용적이 작고, 가벼운 것, 신축성 재료를 이용을 하며, 여유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하였다²⁾. 이 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 바지는 매우 실용적인 복식이다. 박춘순(1992)³⁾은 바지의 전래에 대하여 스키타이가 착용한 밀착되는 형태의 바지가 기원이며, 게르만을 통하여 유럽에 전달되고, 흉노(匈奴)를 통하여 중국과 우리나라에 전달되며, 페르샤를 통하여, 이슬람 문화권에 전달되었음을 확인한다. 또한 加藤定子⁴⁾는 노잉우라 유품을 중심으로 조사한 자료에서 노잉우라의 유품 조사결과와 丹野郁(1959)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며 북방계 바지는 가죽을 재단하여 이어 맞추는 것에서 출발되었다고 추론하고 있다. 이는 초기에 직물과 같이 넓은 폭의 재료는 북방계 바지와 같이 이어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유목민이 직물로 의복을 만들기 이전부터 바지를 제작하는 복잡한 기술을 익히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는 직조기술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동물의 가죽을 이용하여 동물과 비슷한 표피를 만들기 위하여 인체에 밀착시키는 작업으로 시작된 것이

의복의 초기 형태였다고도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세계 각 민족의 민속 바지의 형태 분류는 Henny. H. Hansen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바지의 형태를 따라서 두 다리를 수직 봉합한 형태의 각반형(genuine legging trousers), 한 장의 천을 전후에 드리워서 몸의 측면에서 이어 만든 귀저기형(genuine breechcloth), 앞의 두 형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봉합선이 4개 이상인 복합형(compound form) 3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⁵⁾ 또한 박춘순은 바지 분류의 유형을 의복 발달의 요인에 의한 분류로 시도하였는데, 사회 환경적인 요인(생업, 종교, 성별, 계층), 자연 환경적인 요인(기후, 풍토), 구조적인 요인(성형정도, 착용 형태, 착장 방법, 여밈 위치, 재단형, 재질, 당의 유무, 실루엣의 형)등을 들어 세분하여 분류하는 방법으로 민속바지를 분류하였다⁶⁾.

이러한 바지의 기원을 살피기 위한 다양한 연구는 최초의 바지를 기마 유목민인 스키타이민족의 바지를 기초로 하는 것에 두고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인류학자들에게는 인류의 기원이 흑인에서부터 시작되어 인류의 최초의 거주지는 적도부근에서 북방으로 이동을 하였다는 설이 지배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볼 때, 인류의 분포는 적도를 중심으로 하여 더운 지역에서 추운 지역으로, 좀더 풍요로운 환경을 찾아서 계속하여 이동하였으며, 그 만큼 효율적인 노동을 위한 의복의 필요는 스키타이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에게나 필요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각 민족의 바지가 전래된 것도 있으나, 자연 파생적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이는 이슬람의 사르와르나, 동남아시아의 사롱, 도티의 경우는 腰衣에서부터 자연스러운 필요에 의해 변화되어진 바지의 형태이며, 스키타이식의 재단 형과는 거리가 있는 형태 및 구성요소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터키를 중심으로 매우 커다란 광폭의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직조기술은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막기후에 적합한 몸에 붙지 않으며, 최대한 태양으로부터 몸을 가릴 수 있는 형태로 의복의 발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한 장의 천으로 만들어지는 동남아시아의 비 성형바지 구조와 착장 후의 모습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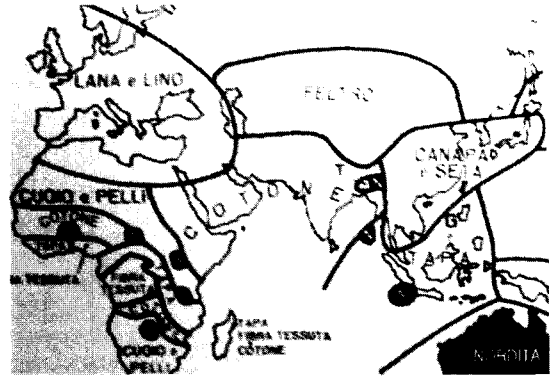
슬람 문화 안의 바지인 샤르와르와 더 유사하다. 그렇다면 스키타이에 의한 바지 전래보다는 필요에 의한 자체 발전의 의미도 크다고 볼 수 있다.

III. 유라시아지역의 지형적 특색 및 민속복식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로 묶어 부르는 이름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두지 않으며, 극동아시아와 현재의 동·서 유럽을 제외한 지역이라 할 수도 있다. 江上波夫는 유라시아 지역을 툰드라 지대, 북방 유라시아 森林帶, 내륙 유라시아 건조대, 서아시아 건조대, 몬순대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는데⁷⁾ 그것은 기후와 지역상의 특성이 고려되어진 구분으로 시베리아를 포함하는 북방 툰드라지역, 북방 유라시아 삼림대와 내륙 유라시아 건조대를 포함하는 중앙아시아, 이슬람 문화권의 서아시아, 몬순 기후지역인 동남아시아로 볼 수 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에서 주로 사용된 의복섬유소재로서 지역을 나눈 G. Montadond⁸⁾ 의하면 중앙아시아는, 유목사회의 습성과 생활 문화의 영향을 받은 펠트를 주로 하여 모피, 피혁들이 많이 쓰였으며, 서남아시아는 코튼, 동남아시아와 중국 지역은 실크와 카나파, 지중해와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유럽은 울과 린넨이 주요 의류 소재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지역적인 특성과 생활상의 관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생활 문화를 통해 발전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앙아시아·서부아시아·동남아시아 세 지역을 중심으로 민속 복식 중 남자 바지의 형태와 착용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는 일반적으로 북쪽은 시베리아, 남쪽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인도에 접하며, 동쪽으로는 大興安嶺산맥과 중국 평야지역에, 서쪽은 카스피해에 이르는 지역으로, 동(東)투르크িস탄으로 불리는 중국의 신장위글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와 서(西)



<그림 1> 소재 사용분포(Ethnologica, 1966, p.73)

투르크িস탄으로 불리는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탄의 4개 공화국 및 카자흐스탄 남부를 합친 지역을 가르킨다. 민족구성은 산악과 고원지대사이에 위치하는 초원지역에서 주로 유목생활을 하는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기원전 스키타이 민족의 활동무대였고, 길이가 짧은 초목이 있는 스텝지역을 형성한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문명 발생지역으로부터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나, 몽고족의 침입과 지배, 이슬람 문화권의 도래 등 여러 문화의 집합지가 되었고, 실크로드의 중요 교역로로서 많은 민족의 교류가 이루어진 복합문화를 갖는 유목 사회를 형성한다. 이들의 생활은 가축(소, 말, 낙타, 염소, 양)을 사육하여 가축의 고기, 젖, 유제품을 주식으로 하고 의복과 이동식 가옥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이동중심의 편리성과 기동성이 중시되는 유목생활이 중심으로 농경생활을 천시하며, 입식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 낙타, 염소, 양의 가죽과 털을 이용한 모피와 울·견·면·마 등이 일반적인 의복재료이며, 일반서민 남자들은 줄무늬의 면이나 견직물을 이용하는 카프탄(전개형의 상의)과 셔츠, 각종 바지와 모피코트를 주로 입으며, 모자와 장화를 기본 복식으로 한다. 이 지역은 습도가 낮고 건조하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모직상의와 바지, 터번 등 방서적인 옷차림을 한다⁹⁾. 남자복식은 전통적으로 승마, 전투 등 산악지대의 생활에 적합한 구조와 스타일로 되어 있다. 일반적인 여자의 복식은 조끼와 블라우스, 스커트, 모자 또는 화려한 머리장식을 하거나, 허리에 띠를 매고 원피스 아래로 바지

를 착용하며, 남자와 같이 카프탄 스타일의 코트를 입기도 한다.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직물은 Ikat 직물로 실크와 면을 교직하거나, 또는 벨벳조직으로 생산을 하였다. Ikat 직물은 경사에 무늬를 그려 넣은 후 단색의 위사로 제직을 하여 번진 효과를 갖게 만드는 직물이다. 유목민인 중앙아시아 민족들은 정착을 할 때마다 면화를 심고, 그 주변에서 양잠을 하였으며, 그 실로 직물을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이슬람 민족은 면과 실크가 아닌 가죽과 조화된 장식을 더 좋아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ikat 직물이 만들어진 것은 여성에게 가죽이 금지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¹⁰⁾.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별 민족복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 투르키스탄(중국 신장위글자치구 Xinjiang Uygur)

위글의 남자 복식은 긴 튜닉형의 셔츠에 삼각형의 스카프를 허리에 벨트처럼 둘러맨다. 하의는 긴 바지를 착용하며, 부츠 속으로 바지 부리를 여며 넣어 입는다. 겹옷으로는 남녀 공용의 치아판(Qiapan)이라는 무릎을 덮는 길이의 無扣 직령의 大襟장포를 입는다¹¹⁾.

위구르의 여성은 붉은 색, 보라색 흰색의 화려한 무늬의 긴소매 튜닉형 원피스를 입고, 아래에는 바지를 입기도 한다¹²⁾ 주요 의복재료는 모직물, 면직물, 견직물, 마직물, 피혁 등을 사용하였다.¹³⁾

2) 서 투르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국토의 대부분은 낮고 평평한 저지로 북서부와 중앙부는 사막·초원지대이며, 남동부는 산지 및 분지이다. 기후는 대륙성 기후대로 한서의 차가 심하고 연간 강수량이 적으며,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건조기후 지대이다. 이러한 기후는 가축사육과 양잠산업에 적합하며, 목화재배에 적절한 기후 때문에 이 지역은 세계 최대의 목화생산지 중의 하나이다. 남자들은 칼라츠(Kahalats)라 불리는 헐렁한 면코트를 입는데 이것은 긴소매로 무릎길이 정도이며, 화려한 스카프를 허리에 매어 입는다. 코

트 아래는 화이트 셔츠에 어두운 컬러의 바지를 부츠 안에 넣어 입는다¹⁴⁾. 여자의 복식은 위구르와 유사한 줄무늬의 실크 원피스나, 칸-아틀라스(Khan-Atlas)로 잘 알려진 화살 깃무늬의 드레스를 입고 그 안에 바지를 입는다. 이는 이슬람 문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신체가 보여 지면 안 되기에 드레스가 바닥까지 오게 길거나, 안에 속바지를 입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녀 모두 곱게 수가 놓아진 사각형의 모자를 쓰는데 축제 시에는 여자들은 여기에 술을 달기도 한다. 명절에는 착용하는 우즈베크 민족의 상은 목도리로 묶여져 있고 밝은 색깔로 줄무늬가 되어있는 긴 옷이다. 여인들은 색깔이 있는 밝은 비단옷들을 입으며 머리에 하얀 수건을 쓰고 비단으로 수놓아진 골무 형 모자를 쓴다¹⁵⁾.

-투르크메니스탄

수니파 이슬람교를 믿으며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주를 이루는 나라로 카스피해와 동쪽의 아무다리아강에 접해 있다. 실제적으로 국가라기보다는 투르크 문화권의 민족을 형성하며, 최근까지 유목 생활을 하여온 민족이다. 의복 재료는 이 지역에서 자라는 유명한 카라쿨 산양의 털로 된 검은 색 또는 밤색의 울이다. 남자들은 높은 부츠와 매우 꼭 끼는 블랙 또는 브라운의 바지를 입는다. 남자의 셔츠는 오른쪽에 트임이 있는 둥근 목둘레의 셔츠를 주로 입는데, 긴 소매에 어두운 색이며, 허리에는 밝은 색의 새쉬 벨트를 맨다. 모자는 흰색 또는 밤색의 양가죽 모자를 쓰며, 우즈베크의 칼라츠와 비슷한 코트를 입는다. 여성들은 매우 화려하고 느슨한 카프탄을 대조적인 색의 선 장식이 된 바지와 함께 입는다. 카프탄의 중심은 둥근 목선을 따라 허리까지 열려있으며, 목에는 작은 스탠드칼라가 달려 있고, 자수 장식이 되어있으며, 소매는 길고, 허리에는 주름이 잡혀있다. 여자들의 머리장식은 매우 화려한 색의 스카프를 두르는데, 여름에는 주로 면을 겨울에는 주로 울을 사용한다. 야쉬마크(Yashmak)는 유목민의 전통 복식으로 소매가 달려있는 결혼한 부인들이 사용하는 쓰개류이다¹⁶⁾.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유목민과는 달리 일부를 제외하면 산악지대의 주민이었으나 차츰 저지

로 이동하여 정착생활(농경)을 하는 민족이다.

타지키스탄의 남자복식은 우즈베키스탄 남자와 비슷한데 깃 둘레와 앞가슴 트임 부분, 소매 부리 등에 자수 장식이 되어 있는 흰색 셔츠와 바지부리 양측이 터져 있는 긴 바지와 함께 숨을 두어 누빈 카프탄을 입는다. 모자도 우즈벡과 비슷한 모자를 사용한다. 의복의 소재는 주로 모피와 울로 조직된 무지의 직물을 사용하며, 毛氈으로 된 모자를 쓴다. 여성의 기본 복식은 튜닉식의 원피스, 상의와 하의, 카프탄 등이 있으며, 위에 걸치는 옷은 소매가 움직이지 않게 달려 있는 쓰개를 사용하며, 얼굴 가리개로 얼굴을 가린다¹⁷⁾.

- 키르키스탄

키르키스탄은 동서 900km, 남북 410km의 짧은 거리에 지형의 변화가 많은 산악국이다. 키르키스탄은 유목민의 전통을 이어가는 민족으로서, 부족주의 성격이 강하며 남부와 북부의 문화적 차이가 크다. 다른 중앙아시아의 민족과 유사한 형태로 깃 둘레와 앞 트임 부분에 자수장식이 있는 흰색의 셔츠와 겹에는 깃이 없는 짧은 상의를 즐겨 입고, 양가죽이나 면직물로 제작한 외투를 입는다. 하의는 가죽으로 만든 통이 넓은 바지와 목이 높은 신을 신는다. 여성의 옷은 원피스와 모자, 은화를 장식한 조끼를 기본으로 한다.

3) 카자흐스탄

기후는 대륙성으로, 덥고 건조한 여름과 비교적 따뜻한 겨울이 교차한다. 카자흐인은 북쪽으로 서 시베리아에서 남쪽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분포하는 터키계 민족으로 원래 유목민이었으나 근년에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다. 남자바지의 형태 및 소재는 기마에 편리한 복장으로 넓고 튼튼하며, 옷소매가 매우 길다. 소재는 주로 모피를 사용하고 毛氈으로 만든 모자를 착용하기도 한다. 외투는 안감으로 양털이나 낙타털을 넣어 입는다¹⁸⁾. 일반적으로 여성의 복식은 조끼에 블라우스, 스커트, 판탈롱차림이 표준으로 높은 칼라가 달린 길고 넓은 드레스와 발목을 묶는 바지를 입기도 한다. 미혼의 여성은 비즈 자수가 놓인 모자를 쓰고, 기혼의 여성은 흰색의 편물천으로 머리를 덮는다¹⁹⁾.



<그림 2> 위구르남자
(www.hischina.net)



<그림 3> 우즈베키스탄 전통 직물로 만든여성원피스
(세계전통복식, 2001, p.56)



110 絨糸を纏るウイグルを纏た女性 1990年代

<그림 4> 우즈베키스탄 여자
(세계전통복식, 2001, p.56)

2. 이슬람 문화권의 서부아시아

서부 아시아는 대체로 인도와 중앙 아시아를 제외한 아시아의 남서부를 가리킨다. 동쪽은 파키스탄의 슬라만산맥, 서쪽은 지중해의 다르다넬스 해협에 이르며, 남쪽은 수에즈 지협²⁰⁾과 홍해·아라비아해, 북쪽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접하는 지역으로 아프가니스탄·이란·이라크·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오만·예멘·시리아·요르단·터키가 이에 속한다.²¹⁾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권이며 대부분 사막지역으로 유목에 의해 낙타·소·양이 주로 사육되고,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소규모 농업을 주로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건조지대로 내륙지방은 초원이나 사막을 이루는 곳이 많으며, 내륙하천을 이루거나 우기에만 초지가 발달한다. 지중해 연안의 좁은 지대를 제외하

면 대부분이 사막지대이다. 따라서 하안(河岸)과 해안지역 및 오아시스에서 정착농업이 이루어질 뿐 공업화, 산업화 시대인 현재도 유목(遊牧)이 거의 주된 생활양식이다. 복식은 이슬람율법에 따라 여성의 복식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노출이 최대한 제한된 형식으로 베일을 착용하며, 기본복식으로 카프탄 형의 상의와 샤르와르를 착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남자의 쓰개는 터번을 사용한다. 서부아시아의 직조기술은 매우 발달되어진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탄자, 넓은 숄, 여성의 베일 등, 면과 실크, 린넨을 이용한 무늬 있는 다마스크, 브로카이드 등 광폭의 직물 생산이 많았으며, 남성의 카프탄도 이란과 시리아 등에서는 직물의 폭을 그대로 연결하여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직물을 재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일광노출을 피해야하는 사막기후에 대한 자연적인 적응과 이동의 편리성과 활동성에 더한 좌식 생활방식에도 매우 적합한 바지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된다²²⁾.

1) 이란

이란은 남 페르시아 만 북쪽에 위치하는 회교 공화국으로 실크로드의 요지 중의 하나로 고대로부터 동서문화교류의 중심이었다. 국토의 대부분이 고원, 산지 및 사막으로 되어 있어서 농경지는 매우 적으며, 두 개의 산맥에 의해 서로 다른 기후 환경을 갖는 지역으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인종은 이란계와 아제르바이잔족이 대다수이며, 대부분은 이슬람신자이다.

지형적인 차이로 인해 이란의 민속복식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남자의복의 경우 흰색의 배기형(Baggy)의 샤르와르 바지를 밴드 장식이 있는 흰색의 셔츠와 같이 입는다²³⁾. 그 위에 컬러가 있는 코트를 입고, 터번을 두른다. 겉옷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달라, 카쉬가이(Kashgai)족은 파란색 줄무늬가 있는 무릎길이의 코트를 넓은 새쉬벨트와 함께 입으며, 어두운 색의 바지는 펠트캡과 같이 쓴다. 쿠르드(Kurds)족은 장단지 길이정도의 자켓형 겉옷을 착용하며, 터번이나 작은 페즈(fez)모자를 사용한다. 이슬람의 여자들은 율법에 따라 베일로 모습을 가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 베일을 차도르라 부르

는데, 여성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서 가리게 되어 있다. 그 안의 기본 복식은 헐렁한 긴 소매의 튜닉을 풍성한 스커트 또는 바지와 같이 입는다. 이란인은 꽃무늬를 매우 좋아하여, 화려한 꽃무늬 장식을 한다. 일반적으로 바지와 튜닉의 단에 브레이드 장식이 있다.

2) 이라크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을 중심으로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진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심한 지역으로 주로 아랍인들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수도인 바그다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중심으로 오랫동안 아랍세계의 교차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슬람의 율법을 중심으로 생활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아랍의 국가들의 의복과 비슷한 형태의 의복 문화를 갖고 있는데, 남자의 일반적인 복식은 디쉬다샤(Dishdasha)라고 하는 발목까지 오고, 목에서 허리까지 이어지는 앞트임이 있는 흰색의 셔츠를 입고, 자분(zaboon) 또는 사야(saya)라고 하는 줄무늬 또는 단색무늬의 긴 크로스-오버 코트를 입는다. 하의는 흰색 면의 바지 또는 샤르와르를 입으며, 샌들을 신는다. 외투로는 아바야(abaya)라고 하는 헐렁한 옷을 입는다. 머리장식은 아이갈(igual)로 묶어서 머리에 장식하는 구피야(kuffiya) 또는 헤드 스카프의 일종인 야쉬마흐(yatshmagh)가 있다. 여자는 면직물 또는 실크의 다양한 색상의 꽃무늬, 기하학 무늬의 튜닉형태의 드레스인 하쉬미(hashimi), 남자와 같은 아바야(abaya)등이 있다. 하쉬미에는 수를 장식하거나 브레이드 장식을 하여 입는다. 여성의 아바야는 이슬람 문화에 따라 여성의 머리부터 감싸는 형태로 주로 검정색이다. 질이 좋은 모직물 또는 견직물을 사용한다.

3) 파키스탄

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의 접이지역으로 주민의 대다수는 이슬람교도이나, 주민이 주로 인도의 이주민으로 인도 문화의 영향과 중동문화가 혼용되어 있다. 기후조건은 북부는 고산성 기후, 중앙은 스텝기후, 남부는 스텝과 사막성 기후가 동시에 나타난다.

남성은 주디다르(cudidar)라는 바지와 튜닉형의 구르다(kurda)라는 상의를 기본으로 하며, 여성은 튜닉형의 긴 상의인 가미즈(khamiz)와 매우 넓은 폭이 있는 샤르와르(shalwar)바지를 입고, 오드니(odhni) 또는 두파타(dupatta)라는 베일형의 쓰개를 사용한다.

4) 사우디 아라비아

아라비아 지역은 사막성 건조기후의 반도이다. 일사가 매우 강하여 고온인 반면 습도가 낮기 때문에 땀의 증발을 억제하고, 일사를 차단하는 의복이 요구된다. 이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하여 예멘·오만·바레인·아랍에미레이트 등이 있다. 남자의 복식은 튜닉형의 쏘브(thob) 또는 토브(tobe)원피스 스타일의 넉넉한 긴 셔츠를 기본으로 하며, 그 위에 굼바즈(gumbaz)라는 헐렁한 소매의 외투를 입는다. 이 옷들은 면 또는 고운 울 소재로 만들며, 줄무늬를 주로 사용하는데, 목둘레와 소매단 등에 자수 브레이드로 장식한다. 머리에는 캡을 쓰고 그 위에 스카프로 덮는다. 이 스카프를 고정시키는 끈을 아이갈(iqal)이라 부른다. 여성의 기본 복식 또한 헐렁한 토브로 목둘레와 밑단, 소매 등에 수가 놓여 있으며, 머리장식은 터번, 또는 은화장식이 달린 밴드를 매고 그 위에 전신을 베일로 가린다.

5) 터어키

터어키는 지중해에 접해있는 유럽과 아시아의 접점지역에 위치하여 지중해성 기후를 나타내는 남부와 내륙의 고원지대로 나누어진다. 터어키는 예전에는 동로마제국이었으나 11세기 이후 이슬람화 되면서 문화적으로 서방의 문화와 아시아의 문화가 융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기본복식으로 여성은 긴소매의 흰색의 블라우스와 폭이 넓고 헐렁한 샤르와르라 불리는 바지, 그리고 소매가 없는 바지와 같은 소재의 조끼를 입는다. 허리에는 술 장식이 달린 화려한 새쉬 벨트를 맨다. 머리에는 스카프를 두르는데 그 위에 터번 스타일로 동전 장식이 된 모자를 사용한다. 여성복으로 많이 사용되는 우에텍(ucetek)은 긴소매가 달린 자켓 또는 코트로 카프탄 형식이며, 옆 트임이 있다²⁴⁾. 색은 주로 스트라이프 무늬나 바지와 대조되는 색을 즐겨 사용하며, 예메니(yemeni)로 알려

진 전통 신을 신는다. 남자의 일반 복식 또한 여자와 마찬가지로 폭이 넓은 샤르와르, 또는 지브카(zivka)라는 무릎 아래를 타이트하게 묶고, 엉덩이 부분이 여유로운 바지를 입으며, 색이 화려한 셔츠를 입고 재킷으로는 캡켄(cepken)을 함께 입으며, 터번형태의 모자 또는 터어키 전통모자로 많이 알려진 붉은색의 페즈를 쓴다. 터어키는 직조기술이 매우 발달하였는데, 특징적인 것은 금, 은실을 실크와 함께 사용하는 기술(klaptan, tel, sim의 세 가지 기술이 유명하다²⁵⁾)이 발달하였고, 직물로는 다마스크, 브로케이드, 벨벳 등 매우 화려한 무늬와 넓은 폭의 직물이다.

3. 동남아시아

북서쪽은 술라이만산맥, 북쪽은 파미르 고원·히말라야산맥과 경계하고, 동쪽은 인도차이나 반도, 서쪽은 이란·아프가니스탄과 접하며, 남서쪽은 아라비아 해, 남쪽은 인도양, 남동쪽은 벵골 만으로 둘러싸인 지역과 인도차이나 반도와 그 남동쪽의 말레이 제도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아시아 최 남단부를 구성하며 열대성 기후로 특징지어지는 지역을 함께 동남아시아로 분류한다. 인도차이나반도와 그 남동쪽에 분포하는 말레이제도로 인도네시아, 타이 등을 포함된다. 자연적으로는 ‘몬순아시아’지역을 이루어 고대부터 많은 민족국가와 전통문화가 번영한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이 지역의 민족복식은 열대기후의 조건으로 인해 한 장의 긴 직물을 이용하는 단순한 복식이 주를 이룬다. 인도의 사리, 도티, 타이의 파춘가벤, 인도네시아의 사롱 등 주로 허리에 묶거나, 몸을 감아서, 입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남자복식의 경우는 다른 민족복식과는 달리, 비 성형이 되어진 바지가 아닌 착장후 바지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스커트와 같은 상대로 착용을 하기도 한다. 이 지역의 직물은 화려한 프린트와 이kat 직물이 생산되는데, 주로 면과 실크로 생산된다. 인도 및 동남아시아의 기본 복식은 다음과 같다.

1) 인도

정식명칭은 인도 공화국(Republic of India)이다. 아시아 문명의 원천으로 불교가 발상한 곳이며, 천축

(天竺)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곳이다. 인도는 위치상 기후가 아열대에서 온대에 위치하지만, 히말라야산맥이 장벽을 이루어 전체적으로 열대몬순기후를 나타낸다. 인도는 다양한 언어와 종교, 인종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종족과 종교에 의한 분쟁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곳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종교 집단은 힌두교와 회교가 있고, 힌두이즘이라는 독특한 문화 배경아래 생활한다. 인도 전통복식은 무굴 제국의 왕족복식이 인도의 기본 복식의 틀을 만들었는데 왕족의 복식은 하의의 파자마(pijama)와 앙갈카(angarkha) 또는 자마(jama)라는 튜닉을 입는다²⁶⁾. 일반적인 서민의 복식으로 여성의 복식은 요의, 가슴가리개, 스카프나, 솔의 형태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티와 출리로 발전하였고, 바느질하지 않는 5.5m의 길이에 폭이 1-1.5m인 한 장의 천으로 만들어지는 사리(sari)는 인도 부인의 가장 특색 있는 복식이다. 여성의 도티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입는데 사리 아래에 착용한다. 남자의 복식은, 파자마(pijama), 샤르와르(shalwar), 주디다르(Chudidar) 등의 바지와 허리에 둘러 입는 바지는 아니나 바지의 형태로 입는 도티(dhoti), 룬지(lungi) 등과 튜닉형의 상의인 구르다(gurda)와 입는다. 머리에는 터번을 쓴다.

2) 타이랜드

정식국명은 타이 왕국(Kingdom of Thailand)이다. 기후는 열대 몬순 기후로 비교적 강수량이 많으며, 습윤하다. 초기의 타이 복식은 요권의를 다리사이에 끼어서 바지의 형태로 입는 모습이 보이며, 이때 상반신은 옷을 입지 않거나 솔을 두른 형태로 나타난다. 이후 17세기에 들어서 궁중을 중심으로 서양복과 융화된 복식을 사용하게 된다 파-사바이(Pha-Sabai)라는 상의와 파농(Phanung)이라는 한 장의 천으로 바지의 형태를 만드는 파춘가벤(Pha-Chungaben)을 입는다. 여성의 복식은 블라우스나, 소매 없는 셔츠, 하의로 파농을 허리 앞으로 주름을 잡아 입는다. 90cm폭의 3m 길이의 천인 파농 파라이(Phanung-palai)는 무늬가 있는 여성의 하의이며, 파농-파분(phanung-papoon)은 무늬가 없는 여성의 공식하의이다. 남장의 파농은 파타스(patas)라

고 부르는데 65cm폭에 1m길이다. 그밖에 타이의 소수 민족은 약 50만명으로 중국계의 야오(yao)족과 리수(lisu)족 등이 있다²⁷⁾.

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1700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국가로 우기에는 고온 다습, 건기에는 고온 건조한 열대성 기후로 동남아시아의 전형적인 기후특징을 갖는 지역이다. 민족은 자바족, 순다족, 마두라족을 대표로 하는 300여 개의 부족이 섞여 사는 혼합문화를 나타낸다. 종교는 이슬람교를 믿으나, 힌두교와 애니미즘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종교의 영향은 직물의 문양에서도 나타나는데, 이슬람과 인도의 파톨라 디자인의 영향인 꽃이나 페이즐리 문양, 힌두 문화에서 유래한 뇌 문양, 중국의 만(卍)자문양 등이 인도네시아 전통직물인 경사 이卡特직물에 많이 사용된다.²⁸⁾ 인도네시아의 기본여성복식은 가슴을 가릴 수 있는 탑 형태의 코탕(kotang)입고, 하의는 카인판장(kain pandjang)을 둘러 입는다. 그 위에 장식용 솔이 깃에 달려 있는 카바야(kabaya)라는 타이트한 자켓형 블라우스를 입는다. 그밖에 바쥬 쿠롱이라는 원피스가 있으며, 이밖에 원주민들은 간단한 요의만을 입기도 한다. 남성복식은 일반적으로 카인판장(kain pandjang)을 입는데 크기는 폭 110cm 길이는 270cm정도로 허리에 감아서 입는다. 상의는 셔츠형의 바쥬(badju)나 무릎길이의 도도트(dodot)을 입는다. 바지는 궁정용의 다부다부라는 긴 바지가 있다. 머리장식은 바틱천으로 터번을 만들어 쓴다.

4)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기후는 전형적인 열대 우림 기후로 온난 다습하다. 전 국토의 대부분이 밀림으로 덮여있다. 민족의 구성은 말레이인, 화교, 인도인 등으로 복합민족사회를 구성한다. 다종교를 이루지만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이 강하며, 농업이 주를 이룬다. 기본복식은 하의로 사롱을 입는데, 폭 1m, 길이 2m의 통형으로 한쪽으로 몸을 밀착시키고, 남은 여유로 주름을 잡아 입는다. 상의는 스탠드 칼라의 셔츠 형태인 바쥬 말라야(Baju Malaya)가 있다. 예장을 할 때나

민속 무용 시에는 남자의 복식으로 바지와 셔츠를 착용하는데 바지 위에 짧은 사롱을 덧입고, 검정색의 송곡(songkok)이라는 모자를 쓴다²⁹⁾.

IV. 유라시아지역의 전통남자바지의 고찰

1. 중앙아시아의 남자 바지

중앙아시아 19세기 민속복식 중 남자바지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Henny H. Hasen의 분류에서 보여지는 혼합형의 모습을 보인다. 이는 두 장의 천을 다리를 감싸듯이 몸체의 옆 부분에서 가운데를 향하여, 가운데 부분의 삼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천을 바이어스로 붙여서 다리의 움직임을 편하게 한다. 또한 허리에서 무릎까지는 여유 있는 폭으로 되고 종아리 아래 부분을 각반이나 끈 또는 천으로 다리를 묶어 밀착시키는 형태가 많으며 비교적 여유로운 폭을 갖고 있다. 허리는 대를 사용하여 여미거나 끈으로 묶어 여미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다리의 정면과 정 뒷면에서 주로 봉합선이 보여지는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다리 사이의 여유로움을 주기 위해 여러 조각의 직물을 이어 붙인 형태로도 나타난다. 착장의 모습은 주로 바지 부리를 긴 부츠 안으로 밀어 넣어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5> 타지키스탄의 타지크남자 (Costum 2001, p.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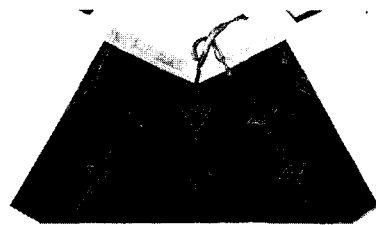
<그림 6> 우즈베키스탄 사마르 칸트 걸인(Costume, 2001, p.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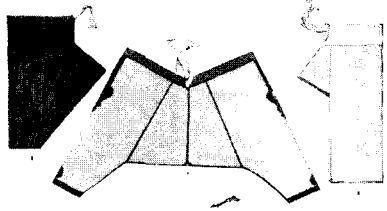
<그림 7> 1970년대 우즈베키스탄남자복식(세계전통복식 2000, p.56)

2. 서부아시아의 남자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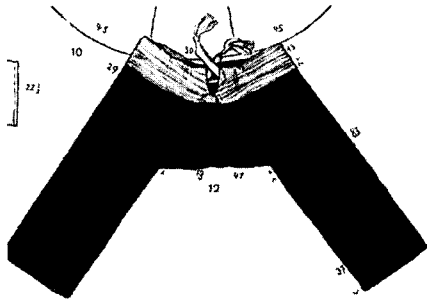
이슬람 문화권의 바지양식은 착의형과 드레퍼리 형이 혼합된 독특한 형의 샤르와르이다. 이슬람문화권인 중동과 파키스탄, 인디아를 포함하는 근동지역은 코튼을 많이 사용하며 넓은 폭의 바지를 착용한다. 직선형의 재단과 넓은 폭의 천을 이어 붙여서 무릎 또는 발목에서 조여지는 형태로 나타나며, 주로 바지 밑이 골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몸의 앞부분에 주름이 풍성하게 생기며, 통기와 여유로운 움직임, 좌식에 편리한 구조를 갖는다<그림 14>³⁰⁾. 이는 두 장의 천을 앞과 뒤로 맞대어 허리에 묶는 요권의 형태에서 다리 사이를 통과하여 성기를 보호하는 형태로 발달되어 졌다고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재단 형으로 폭을 달리하기도 한다.



<그림 8> 검은 색의 쿠르드 수장의 바지, 노란색과 연어색의 장식이 있으며, 면으로만들어졌다. Costumes Patterns and designs, 1990, p.19)



<그림 9> 터어키 남자의 바지(breeches),
(Costumes Patterns and designs, 1990, p.19)



<그림 10> 이란의 남자 바지. 펠트로 만들어졌음
(Costumes Patterns and designs, 1990, p74)



<그림 11> 이란의 남자 복식
(세계전통복식, 2001, p.64)



<그림 12> 아프카니스탄의 남자복식(세계전통복식, 2001, p.61)

3. 동남아시아의 남자복식

동남아시아의 남자바지의 특징은 한 장의 천으로



<그림 13> 예멘의 남자복식(세계전통복식, 2001, p.66)



<그림 14> 1865년 팔레스타인 Tyr남성 (COSTUME, 2001, p.264)



<그림 15> 1860년 팔레스타인 Akko출신의 부부
(Costume, 2001, p.265)



<그림 16> 1865년 시리아의 남성 (Costume, 2001, p.269)

바지의 형태를 만드는 비 성형구조에 있다. 한 장의 천을 허리에서부터 주름을 잡아 다리 사이로 둘러 바지의 형태를 만드는 인도의 도티, 태국의 파춘가벤 등이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남자도 스커트의 일종인 원통형의 큰 폭의 사롱을 입으며, 필리핀 원주민의 경우 20세기 초까지도 간단한 요의를 정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비 성형 바지의 경우 주로 요의의 형태에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간단히 성기의 보호나, 수치심으로 인한 가리개에서 점차 직물의 발달과 장식적인 필요, 일광에서의 보호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의 형태로 변화하게 된 것이 아닐까한다. 그밖에 동남 아시아지역의 성형바지는 인도의 허리에서 무릎까지는 넓은 바지이나 무릎 아래 다리는 밀착되는 형태의 바지로 허리말기가 있는 주디다르(Chudidar)가 있으며, 샤르와르는 허리에 여유분이 많아 주름으로 잡히며, 발목부터 넓어지



<그림 17> 1975년경의 인도네시아 남자 (세계전통복식, 2001, p.35)



<그림 18> 20세기 초 필리핀 남자원주민의 정장(세계전통복식2001, p.29)

고, 조여지는 형태로 되어 풍성한 느낌이다. 또한 일자형의 피자마라는 바지가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예장복식은 일자형의 바지 위에 짧은 사롱을 덧입기도 한다³¹⁾.



<그림 21> 1990년 인도 노인들의 복장(세계의 전통복식, 2001, p.44)

위와 같은 남자 복식 중의 바지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그림 19> 1875년 타일랜드의 젊은 남자 (Costume, 2001, p.335)

V. 결과 및 결론

선행된 연구에 의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바지의 원형은 허리를 두르던 요권의가 하부로 내려온 형태와 다리에 두르던 경의의 형태가 상부로 연장된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이런 바지 발생양식에 따른 차이점을 중심으로 다음 세 지역 민족의 바지의 형태차이가 고찰하였다. 이때 바지의 형태 구성상의 중요한 구조점은 허리와 다리이며, 바지의 구성의 중심은 이 구조점을 어떠한 방법으로 연결하여 다리를 감싸느냐는 방법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방법과 구성상의 차이를 세 지역의 바지를 형태와 소재의 분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스텝지역인 중앙아시아의 바지는 서아시아의 샤르와르와 같은 형태로 몸 측면을 가리는 두 장의 천을 다리 사이에서 연결함에 있어서, 작은 크기의 직물을 사용하는데, 활동적이며, 편리성이 있으나, 기후 특성에 의해 통기성보다는 폐쇄성이 강조되어 작은 무(당)의 형태로 축소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



<그림 20> 1880년인도의 라지푸트족 (Costume, 2001, p.344)

<표 1> 유라시아 남자 하의의 지역별 특징

	지역	소재	이름	형태의 특징	착장법	
중앙아시아	동 투르키스탄	면, 실크, 면과 실크의 혼방인 Ikat 직물	.	긴 바지 일자형 에 당이 붙어 있음	부츠 안에 여미 입음 각반, 끈으로 다 리를 묶음	구조적 특징은 혼합형 다리의 움직임 편하게 함 허리에서 무릎까지는 여유 있는 폭으로 종아리 아래부분을 각반, 끈 또는 천으로 묶어 밀착시키는 형태가 많으며 비교적 여유로운 폭 허리는 대나 끈으로 묶어 여미는 형태
	서부 투르키스탄	면, 실크, 가죽	.	샤르와르와 비 슷한 형태로 당 이 붙어 있음	끈으로 묶어 발목 을 조여 입음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다리의 정면과 정 뒷면에서 주로 봉합선이 보여지는 형태 다리 사이의 여유로움을 주기 위해 여러 조각의 직물을 이어 붙인 형태
	카자흐스탄	면, 울, 가죽	.	당이 붙어 있음	부츠 안에 넣어 입음	
서부아시아	이란	면, 펠트, 실크 와 면의 교직, 가죽	샤르와르	직사각형의 마루 폭에 골로 만들 어진당이 있음	.	착의형과 드레이퍼리형이 혼합된 독특한 샤르와르로 면을 많이 사용한 넓은 폭의 바지를 착용 직선형의 재단과 넓은 폭의 천을 이어 무릎 또는 발목에서 조여지는 형태
	이라크	면, 울 실크 펠트,	샤르와르	당이 없는 샤르 와르	.	바지 밑이 골로 되어 있는 특징 몸의 앞 부분에 풍성한 주름 통기성과 움직임, 좌식에 편리한 구조
	파키스탄	면, 울 실크, 피혁	쥬디다르	.	.	요권의 형태에서 다리 사이를 통과 하여 성기를 보호하는 형태로 발달 다양한 재단형으로 폭을 달리 하 기도 함
	사우디 아라비아	면, 울,	.	.	.	
	터어키	면, 울 면과 실크의 교직,	샤르와르, 지브카	당의 크기가 매 우 큰 상태	.	
동남아시아	인도	면, 울,	파자마, 샤 르와르, 쥬디다르, 도티, 론지	도티, 한 장의 천 비성형	하나의 천으로 다 리 사이에 끼어서 둘러입음,	한 장의 천으로 바지의 형태를 만 드는 것으로 주로 스커트의 형태에 서 변화되어 졌다고 볼 수 있음
	인도네시아	면, 울	파춘가벤	치마와 같이 둘 러 입음	사롱의 형태로 일 자형 바지에 스커 트를 덧입음	기본적으로 다리보다 성기의 보 호나 가리개로서의 의미가 컸다 고 보여짐
	타일랜드	면, 울, 실크	.	양복형 비성형	다리 사이에 끼어 서 입는 비성형	이것의 점차 변화된 형태로써 비 성형 바지의 형태로 발전되어 졌다 고 볼 수 있음
	말레이시아	면	.	치마와 같이 둘 러 입음	.	

다. 이는 치마와 같은 형태의 서아시아의 샤르와르보다 이 거의 없고, 좁은 끈을 이용한 여밈이 많으며, 셔츠 다 다리 사이의 무가 축소됨에 따라 몸 중앙의 주름 나, 코트 위로 새쉬 벨트를 사용한다. 이러한 작은 무

와 다리에 밀착되는 형태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의복의 소재 사용에서도 많은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면이나, 린넨 같은 식물을 경작하는 정착민이 아닌 유목사회의 경우, 가장 친숙한 것은 가죽의 가죽으로 당연히 가죽의 소재와 가죽의 털을 이용한 펠트는 직물 이전부터 중요한 의복 소재로 사용되었으며, 이들 소재의 조각은 매우 작으므로, 조각을 몸의 형태에 맞추고, 여유분을 두어 꿰매었다고 본다. 이는 다른 복식에서도 보여 지는데, 직물을 사용하더라도 서양복과 같은 패턴에 의한 재단의 흔적이 아닌 조각의 효율적인 사용에 많은 노력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바지의 부리를 대부분 무릎까지 오는 부츠의 속으로 밀어 넣어 입는다.

둘째, 서아시아의 샤르와르는 직선형의 재단과 넓은 폭의 천을 이어 붙여서 무릎 또는 발목에서 조여지는 형태로 나타나며, 바지 밑이 골로 되어 있어 몸의 앞부분에 주름이 풍성하게 생기며, 통기와 여유로운 움직임, 좌식에 편리한 구조를 갖는다. 두 장의 커다란 직사각형의 천이 허리를 중심으로 하여 몸의 양 측면에서 중앙으로 향하여, 가운데 다리사이 부분에 또 다른 직사각형 또는 사다리꼴의 천을 덧대어 다리 움직임을 보조하는 형태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사폭의 천이 필요하며, 자연히 몸 중앙과 다리 사이에 많은 주름이 생겨 치마의 형태를 갖게 되며, 좌식과 기마에 편리한 바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셋째, 인도 및 동남아시아는 샤르와르 계열과 인도의 주디다르, 도티, 태일랜드의 파-춘가벤 등의 바지가 있는데, 이중 샤르와르와 주디다르는 두 장의 천을 몸 측면에서 중앙으로 연결하여 몸의 중앙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 샤르와르와, 다리부분이 꼭 맞고, 허리에 풍성한 주름이 생기도록 하는 바지의 형태를 갖는 주디다르가 있다. 이들의 차이점은 샤르와르는 바지부리부터 당이 달리는 반면, 주디다르는 무릎에서부터 달리는 점이다. 반면 도티와 파-춘가벤은 직사각형의 커다란 천을 허리선에서부터 앞으로 주름을 잡으며, 다리와 허리를 감싸서 바지의 형태를 만드는 봉제가 안 되는 비 성형 바지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재 사용에 대해 살펴보면, 세계지역 별로 주로 의복에 사용된 소재 분포는 대륙 별로 생

활양식과 기후, 풍습 등에 의해 다른 양상을 보인다. G. Montadond³²⁾의 견해와 같이 스텝지역인 중앙아시아의 경우는 주된 의복 소재 및 이동 가옥의 소재를 주로 펠트와 모피를 중심으로 사용하였고, 직물을 사용하는 외투의 경우에도 추위에서의 보호와 많은 활동 양을 고려하여, 주로 모피와 가죽을 혼합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같은 유목생활을 주된 근거로 사용하는 서아시아의 경우에는 인도와 함께 주된 의복 재료로 면의 사용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사막의 기후와 최초의 면화 재배지라고 할 수 있는 면화 생산에 적절한 토양과 환경에 의해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 풍성하고, 통기성이 좋으며, 일광에 신체를 최대한 가릴 수 있는 형태로서의 의복의 발달을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적절한 섬유는 목면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유라시아내의 인접지역인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19, 20세기 민속바지는 비교적 뚜렷한 형태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각기 민족은 생활양식과 기후적 차이점으로 인하여 유목사회의 특성인 이동생활의 생활양식과 농경정착생활양식이라는 매우 다른 생활양식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소재의 다 분화를 가져왔으며 소재 또는 환경에 맞는 특수한 바지 형태를 만들어 냈다. 최근 인류학자들에게는 인류의 기원이 흑인에서부터 시작되어 인류의 최초의 거주지는 적도부근에서 북방으로 이동을 하였다는 설이 지배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에 기초하여 볼 때, 인류의 분포는 적도를 중심으로 하여 더운 지역에서 추운 지역으로, 풍요로운 환경을 찾아서 계속하여 이동하였으며, 그 만큼 효율적인 노동을 위한 의복의 필요는 스키타이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에게나 필요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각 민족의 바지가 전래된 것도 있으나,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 할 수도 있다. 이는 이슬람의 샤르와르나, 동남아시아의 사롱, 도티의 경우는 스키타이식의 재단형과는 거리가 있는 형태 및 구성요소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요에서부터 자연스러운 필요에 의해 변화된 바지의 형태이며, 또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터키를 중심으로 매우 커다란 광폭의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직조기술은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막기후 등 자연환경

에 적합한 몸에 붙지 않으며, 최대한 태양으로부터 몸을 가릴 수 있는 의복의 형태가 요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샤르와르는 오히려 한 장의 천으로 만들어진 동남아시아의 비 성형바지 구조와 착장 후의 모습은 더 유사한데, 물론 동남아시아가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전통적인 원주민의 옷에서 발전된 것이라 생각하면, 자체적인 발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모든 바지의 기원을 스키타이에 두고 보기에는 여러 면에서의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자료의 부족함으로 인해 명쾌한 결론을 얻기는 힘들다. 위의 세 지역을 살펴본 바, 이는 스키타이에 의한 바지 전래보다는 필요에 의한 자체 파생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박순희, Eurasia 유목 기마민족 중 Scythia 복식의 緣 考察, 호남대학교 논문집 제13호, p. 439.
- 2) 小川安郎 (1979), 민족복식의 체계, 의생활 연구회, p. 25.
- 3) 박춘순, 박경자 (1992) 바지형태의 지역적 특성과 변천 과정에 관하여, 복식, p. 145.
- 4) 加藤定子 (1982.) 바지기원에 대하여(노잉·우라(홍노)의 유품을 중심으로), 제 3회 아시아복식학술회의, 한국복식학회.
- 5) Henny, Harald, Hansen (1950), *Mongol costumes*, etnografisk bamling, pp. 105-111.
- 6) 박춘순 (1998), 바지의 문화사, 민속원, pp. 260-274.
- 7) 박순희, 유라시아 遊牧 騎馬民族中 SCYTHIA복식의 緣 考察, 호남대학교 논문집 제 13호 p. 499 재인용.
- 8) Vinigi L. Grottanelli (1966), *Etnologica*, ed. Labor, *Milano*, 3, p. 73.
- 9) 이순홍 외 (2002), 세계복식과 패션정보, 교문사 p. 124.
- 10) Mary Hunt Kahlenberg (2001). *Costume e tessuti dell' Asia*, Milano, skira, p. 59.
- 11) 박춘순, 조우현 (2002). 중국소수민족복식, 민속원, p. 75.
- 12) 이순홍 외 (2002). 앞의 책, p. 126.
- 13) 윤양노 (1993), 위구르 왕국의 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 제 21호, 한국복식학회, p. 155.
- 14) Robert Harrold, Phyllida Legg (1999), *FOLK COSTUMES*, Cassell, p. 109.
- 15) www.uzbak.co.kr
- 16) 이순홍 외 (2002). 앞의 책, pp. 122-128.
- 17) 위의책, p. 127.
- 18) 권현주 (1995). 실크로드 주변의 민족복식, 복식, 24호, 한국복식학회, p. 112.
- 19) Robert Harrold/ Phyllida Legg. *op. cit.* pp. 108-110.
- 20) 육지 양쪽으로 해양(海洋)이나 해만(海灣)이 접근하여 육지가 극단적으로 좁아진 지형.
- 21) 야후 백과사전 www.yahoo.co.kr
- 22) Mary Hunt Kahlenberg (2001). *op. cit.*, p. 23.
- 23) Robert Harrold, Phyllida Legg (1999). *op. cit.* p. 136.
- 24) *Ibid.* pp. 130-134.
- 25) 오춘자, 박길순 (1994). 근동지역의 복식연구 II, 복식문화연구회지, 제2권 제1호, p. 21.
- 26) Mary Hunt Kahlenberg (2001). *op. cit.* p. 81.
- 27) 이순홍 외 (2002). 앞의 책, pp. 26-31.
- 28) 문미영 (1995). 인도네시아 이캣 직물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의류학회지, 제19권 6호, p. 885.
- 29) Robert Harrold, Phyllida Legg (1999). *op. cit.* pp. 179-181.
- 30) Pepin van Roojen (2001). *Costume*, The Pepin Press, p. 264.
- 31) *Ibid.* pp. 179-181.
- 32) 재인용, Vinigi L. Grottanelli (1966). *Ethnologica*, ed. Labor, *Milano*, 3, p. 73.